

연구방법 준비에 조사 성공의 성패 갈려

日 오치아이 교수, 금강대 특강서 불교문헌학 연구 노하우 공개

불교사본은 종이를 비롯해 면 나무 대나무 돌 기와 금속 등 다양한 기록매체에 기록된 불교전적을 말한다. 부처님 당시의 원본 문헌을 대신한 불교사본은 불교학 연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만큼 학술적·역사적 가치는 크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인 불교문헌학 권위자인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가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교사본의 연구현황과 연구방법'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불교문헌학 연구 노하우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오치아이 교수는 2월 22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전학)가 천태종 관문사에서 '동아시아 고대 불교사본의 연구현황'을 주제로 개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강연했다.

오치아이 교수는 "사본 연구에 있어 가장 긴요한 방법은 실물을 직접 손에 갖고 조사하는 것이지만 문화재적 가치 등으로 대부분의 사본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고 강연을 시작했다.

오치아이 교수는 2월 22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전학)가 천태종 관문사에서 '동아시아 고대 불교사본의 연구현황'을 주제로 개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강연했다.

이 소장하고 있다. 이들 사본에 대한 일반연구자의 열람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는 "돈황 사본을 소장한 다수의 기관에서 학예원(Museum Curator)이 갖는 권한은 막강하다"면서 "돈황사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예원이 인정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소장처만의 돈황사본 보관 규칙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영도서관이 소장한 돈황사본인 스타인본의 대부분이 권자본(卷子本)이지만, 이를 보관하기 위해 대영박물관이 짜 맞춘 특별한 상자에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불교사본의 연구방법에 대해 오치아이 교수는 "선행연구 조사와 더불어 불교사본의 실체적인 연구방법도 준비돼야 한다"며 "연구방법 준비에 조사 성공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는 "①조사할 문헌과 선행 조사된 개별 문헌 목록을 입수해 기존 목록에 게재되지 않은 책을 중요점검 목록으로 기록하고 ②사진, 연표, 카메라, 노트 북 등을 준비해 사본 하나하나를 철



저히 조사해 필요시 촬영과 DB화하고, ③촬영된 연구용 사진을 바탕으로 <대장장> 등 활자본과 비교검토해 그 내용을 다시 새기는 번각(飜刻) 작업을 거쳐 관련 논문을 탐색하고 사본을 윤독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치아이 교수는 "문헌의 실제 연구에서 편견을 갖게 되면 새로운 사본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조사에서 예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23일까지 이어진 행사에서는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에서 오치아이 교수의 지도를 받은 연구원들이 발견한 문헌들이 최초로 소개됐

다. 미나미 히로노부 연구원이 발견한 <무량수경술기>는 일본 미노부 분교(身延文庫)에 소장돼 온 고사본에서 찾아낸 신라 의적 스님의 저술이다. 의적 스님은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알려졌다. 현존하는 저서는 2부에 지나지 않았다.

또 동 연구원인 평원엔(定源) 스님은 대영도서관의 미정리 돈황사본에서 발견된 원호 스님의 <기신론소>를 찾아냈다.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는 "의적의 <무량수경술기>는 본서가 일본 학승의 책상에서 사라진 800년만의



미나미 히로노부 연구원이 발견한 신라 의적 스님의 <무량수경술기>(왼쪽)와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

발견"이라며 "이번 <무량수경술기> 발견으로 신라불교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오치아이 교수는 "돈황사본에서 원호의 <기신론소>가 발견된 것은 원호의 사상이 중국불교에 직접 영향을 준 증거"라고 강조했다.

오치아이 교수는 "돈황사본과 일본 내 문헌들에서 신라불교 저술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며 "사본을 통한 동아시아불교 연구가 인문고전학의 부흥으로 이어짐에 한국 신진 연구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초월 스님 태극기 문화재 등록

진관사 태극기 등 6종 21점 31일까지 전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던 백초월 스님의 유품인 진관사 태극기 등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진관사 소장 태극기 등 6종 독립신분류 6종 21점을 2월 25일자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2월 25일 서울역박물관에서 열린 진관사 태극기 특별전 개막식에서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오른쪽)이 전시된 태극기를 보고 있다.

제정된 국기 양식의 4괘와 동일하나 현재의 태극기와는 위치가 다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진관사 태극기가 태극기 변천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요한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진관사는 2월 25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들 등록문화재를 3월 14일까지 서울역박물관에서 전시한다.

느질돼 있고, 중앙에 약 32cm 지름의 태극문양, 네 귀에 건곤·감·리·의 4괘가 갖춰져 있다. 진관사 태극기의 4괘 위치는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가

조동섭 기자

고려시대 인삼 불복장서 출토

전통문화연구원 '천성산 관음사 보살상' 서

조선시대 조성된 불상 복장물에서 현존 최고(最古)인 고려시대의 인삼 등이 발견됐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구원(원장 임덕수)은 2월 23일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불상 및 복장유물 관련 학술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관음사 목조보살좌상서 출토된 고려시대 인삼.

전통문화연구원은 2008년 9월 부산 원광사에 봉안된 이 불상(높이 67cm)의 보관(寶冠) 및 대좌(臺座) 제작을 의뢰 받아 보존처리하던 중 보살상 내부에서 복장유물을 발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불상물 또한 중요한 유물로 판단돼 불교미술사, 직물, 서지학, 보존과학, 목질공예 등의 세부 관련 전공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연구해 왔다. 연구원이 복장물을 조사한 결과,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은 1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장물 중 발원문과 개금문에 따르면 이 보살상은 1502년(연산군 8)에 제작돼 평안도 천성산 관음사에 모셔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살상의 수종분석과 CR 촬영 분석결과, 보살상의 얼굴과 몸체는 소나무 재질로 팔과 다리는 은행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확인됐다.

불상에서 발견된 47종의 복장물 중에는 황동팔엽합(黃銅八葉合)과 각종 보석, 유리제품, 인삼, 나락과 청겨자씨, 대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삼은 탄소연대 측정결과 1060±80년을 전후한 시기의 것으로 밝혀져 적어도 고려시대 것으로 판명됐다. 조동섭 기자

개운사 아미타여래상 등 5건 보물로

복장 전적·갑사 삼세불도·백지금광명경·통영축우대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2월 22일 현존 최고(最古) 중수 발원문이 남긴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 등 문화재 5건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274년이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수 발원문(重修發願文)이 남아 있어 1280년에 중수된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더불어 고려후기인 13세기 전반에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불상이다. 또, 세련되고 뛰어난 조각기법과 장중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조형, 긴장감 넘치는 선의 묘사 등이 잘 어우러진 때

우 완성도 높은 고려 후기 불상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腹藏) 전적' 21점은 대부분 신라시대로부터 고려 전기의 것으로 현재까지 발견 사례가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 전적들은 9~13세기에 걸쳐 필사 또는 간행된 <화엄경>들로 진본(眞本, 60권), 주본(周本, 80권), 정원본(貞元本, 40권) 등 3본 <화엄경>이 고루 들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화엄경〉 등 개운사 복장 전적은 시기적으로 희귀한 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서, <화엄경〉 판본 연구 및 불교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갑사 삼세불도'는 18세기 초·중반 전라도를 중심으로 경상·충청 지역에서도 활동한 당대 대표적 화사인 의겸(儀謙)이 제작한 불화이다. 현존하는 의겸이 제작한 불화는 21건 30점이다. 이 가운데 길이 4m에 이르는 3폭 형식의 삼불도는 '갑사 삼세불도'를 비롯해 '윤홍사 삼세불도' '화엄사 삼신불도' 등 3건에 불과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450cm에 육박하는 대형 화폭에 각 설법장면을



보물지정 예고된 개운사 아미타여래상.

세련되고 유려한 필치, 짜임새 있는 구도와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색채로 부처의 세계를 장엄하게 묘사한 18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 근본 불교 조계종 임원 공고

명예종정 만운 종정 일송
삼임부종정 법정 부종정 혜성, 현공

■장로회의

의장 지선	부의장 덕암
의원 원진	우천
성월	현공
만운	의륜
법정	월주
태중	해원
성원	정훈
혜성	일송
해주	혜공
수혜	혜원

■중앙종무위원

총무원장의 료

삼임부위원장	청광
교육위원장	수혜
문화위원장	상연
총무부장	진법
규정부장	무진
의전부장	석암
포교부장	수덕

■중앙종회의원

의장 혜원 부의장 법정

의원 의륜	청광	수혜	해법
해석	상현	일진	해인
진법	태산	무일	무진
법정	일월	석암	법정
대성	동월	도암	법성
동천	해곡	학용	혜월
일도	동법	서우	법완
법륜	석일	왕인	상법
법원	동봉	수덕	

◆ 총무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390 불탑사 전화 033) 671-7751 / 011-352-7751